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와 지역경제 발전 전략*

이철우** · 박양춘*** · 박규택****

The Restructuring of the Textile Industry of Taegu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Chul-Woo Lee** · Yang-Choon Park*** · Kyu-Taeg Park****

요약 · 본 연구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내·외적 요인들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힘입어 화학섬유 중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를 수립하였다. 노동력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체 특별학급·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 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산시설은 대구시 외곽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자동섬유기계의 도입을 증대시키고 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본과 생산시설을 경북이나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섬유업체간에 협력체제의 구축, 노·사공생의 노동제도 확립, 섬유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 노동시장, 생산자 서비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tructuring of the textile industry of Taegu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her economy. After the 1970s, the textile industry of Taegu has established the system of mass production and export of chemical textile by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and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new labor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solve the labor shortage of local labor market, and also married women have been employed. After the mid-1980s, the textile industry of Taegu has been restructured by the changing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economy. It installed an automatic textile machine and utilized both married women and foreign workers because it was difficult to get low-paid workers. The capital and production facilities of the textile industry of Taegu were moved to Kyungpook province and foreign countries. Finally, the policy gui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textile industry of Taegu ought to emphasize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ive system among textile companies,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institution of surviving both workers and capitalis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er services related to local textile industry

Key Words Taegu city, textile industry, restructuring, local labor market, producer services

1. 서론

지역 산업의 구조변화는 지역 사회·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이론적·실천적 과

제이다.

1960년대 초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 한국경제는 공업부문의 급속한 팽창에 의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경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공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지역개발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업이 집중하였고, 이후 중화학공업은 포항, 울산, 창원, 여천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임해지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이 이들 산업의 핵심공간으로 부상하였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대표하는 대구 섬유산업은 1970년대 이후 화학섬유를 대량으로 생산·수출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지역 내·외적 환경변화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는 지역경제의 회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혹은 도시경제의 재구조화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침체, 탈산업화,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경제의 서비스화, 신산업지구 등 다양한 주제 하에서 논의되었다(Bluestone and Harrison, 1982; Fielding, 1994; Massey, 1984; Morgan and Sayer, 1988). 국내에서 경제 재구조화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국가 규모(national scale)와 도시 규모(urban scale)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태경, 1992; 강현수, 1993; 권기철·주수현, 1997; 박삼욱, 1993; 조형제, 1994; 최병두, 1994; 한상진, 1994; 허석렬, 1994; Koh, 1996; Lee, 1994; Lim, 1994; Park, 1993).

국가 규모에서 재구조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한국경제가 (주변부)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이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변부)포디즘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조명래, 1992; 조형제, 1994; 허석렬, 1994; 최병두, 1994). 그리고 경제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재구조화는 지역 불균등 발전과 노동의 공간적 분화 현상을 경험적으로 논의하였다(Lee, 1994; 조형제, 1994; 최병두, 1994).

도시 규모에서 재구조화의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유

연적 생산전략, 지역 노동시장, 노동의 공간분업화, 신산업지구, 혁신적 생산체계 등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강현수, 1993; 권기철·주수현, 1997; 박삼욱, 1993; 한상진, 1994; Lim, 1994; Park, 1993).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기업(혹은 자본)과 노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고태경(1996)은 재구조화를 세계와 지방의 관계적 관점에서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역(혹은 도시)산업의 변화는 국지적 규모(local scale), 국가적 규모(national scale), 지구적 규모(global scale)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다(박삼욱, 1993; 이희연·최재현,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 이후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지역, 국가, 세계적 규모의 관계적 관점에서 분석·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구경제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역사·공간적 관점에서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 통계, 설문지와 면담 조사 자료를 보다 신축성 있게 이용하였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의 구조변화 분석은 주로 기존의 연구결과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경북 섬유공업 진단보고서(경상북도, 1969), 대구지역 섬유공업 실태(한국은행 대구지점 외 2, 1974),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한국은행 대구지점, 1988), 대구 섬유산업 실태조사(대구직할시, 1993)와 섬유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한 대구섬유산업사(1990)이다.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의 지역내적 환경에 관한 자료는 설문지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지 조사는 1998년 4월 6일부터 16일까지 개별 섬유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업체들은 총 101업체이며, 지역별로는 달서구 65개, 서구 24개, 북구 11개, 달성군 1개업체로 실제 업체에 대한 분석대상 업체의 비율을 보면, 달서구 11%, 서구 7.5%, 북구 5.9%이다. 이들 세 개 지역에는 대구 섬유업체 전체의 78.5%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섬유업체에 대한 조사 외에 상공회의소, 섬유기술진흥원 등 섬유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개별 면담조사도 실시하였다.

2.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의 지역 외적 환경

1) 세계 섬유산업의 구조 변화

산업혁명에 의해 수공업적 가내공업의 전통적 섬유산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구조변화 이후 섬유산업 발달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1930년대 화학섬유의 개발이다(Oman, 1989; Clairmonte and Cavanagh, 1981). 1950년대 이후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화학섬유는 1971년에 9,064 M/T(천연섬유 14,615 M/T), 1980년에 13,718 M/T(천연섬유 15,903 M/T), 그리고 1995년에 21,741 M/T(천연섬유 20,461 M/T)으로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 섬유산업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화학섬유산업은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 선진국에 독점되었으나 이후 선진국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운동,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선진국들이 화학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하면서 표준화된 기술과 생산시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되었다. 개발도상국의 화학섬유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1986년에는 선진국들의 총생산량을 능가하게 되었다(한국산업은행, 1990).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세계 화학섬유생산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였고, 화섬사와 직물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대구 섬유산업은 1970년대 초 천연섬유에서 화학섬유 중심의 구조전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후발 개발도상국 섬유산업이 성장하여 저가의 섬유제품을 선진국으로 수출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재구조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선·후발 개발도상국 섬유산업의 성장은 일본 섬유산업의 자본 투자와 기술 이전에 크게 의존하였다.²⁾ 일본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1980년대를 전후로 해서 투자중심지역이 구분된다(이동기·이운철, 1995; Yamazawa, 1990). Yamazawa(1990)에 의하면, 1955년부터 1978년까지 일본 섬유산업의 해외투자 총건수(377) 가운데 151건(40%)이 한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섬유자본은 타

일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³⁾ 1980년대 이후 선진국(혹은 선발 개발도상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전받아 후발 개발도상국의 섬유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선진국 소비시장에서 선·후발 개발도상국간의 경쟁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섬유산업은 재구조화를 시도하면서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섬유제품 수입을 규제하였다. 즉 1973년 면, 모, 합섬 등 섬유제품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 섬유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⁴⁾ 선진국의 섬유제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섬유와 의류 수출량을 무한정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부정적인 면과 수출 불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다.⁵⁾ 선진국의 섬유와 의류의 수입 규제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별 배당량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타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확대하였고, 나아가서 선진국 소비시장에 근접하면서 수입규제의 영향이 강하지 않은 후발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으로 섬유 생산시설이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선진국 섬유산업은 생산의 자동화, 신제품과 기술 개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수립, 신속대응(QR: Quick Response) 체제 등을 통한 유연적 축적체제를 수립하고, 자본, 기술, 정보, 연구·개발 부문을 장악하여 세계 섬유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Clairmonte and Cavanagh, 1981; Dickerson, 1991; Oman, 1989).

이상의 1970년대 이후 세계 섬유산업의 구조변화를 선진국과 선·후발 개발도상국 섬유산업의 관계적 측면에서 간결하게 도표화한 것이 표 1이다.

1970년대 선진국 섬유산업, 특히 화학섬유산업의 구조변화는 대구 섬유산업이 화학섬유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선진국의 섬유제품 수입규제와 후발 개발도상국 섬유산업의 빠른 성장은 세계 섬유 소비시장에서 저(중)가 섬유제품의 경쟁을 심화시킴에 따라 과도하게 해외 수출에 의존해 왔던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표 1. 세계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

구 분	1970	1980	1990
선진국			
선발 개발도상국			
후발 개발도상국			

2) 한국 경제와 석유산업의 구조 변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한국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석유산업을 포함한 경공업은 경제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저임금 미혼의 여성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노동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⁹⁾ 한국 경제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 상품 수출에서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 최고점(39.1%)에 도달한 뒤 1981년 29.5%, 1990년 22.6%, 1997년 13.5%로 낮아지고 있다(한국석유연합회, 1978; 한국화석협회, 1998). 이와 같은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와 석유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은 한국 석유산업을 천연석유에서 화학석유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시키

고, 대기업들이 다수의 중·소석유업체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형성시키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화학석유원료, 원사, 직물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을 급속하게 성장시켰고, 이들 대기업은 한국 석유산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삼성과 고합은 석유화학공장을 인수하여 화학석유원료(Caprolactam, PTA, E.G.A.N., Monomer)를 직접 생산하고, 또한 화섬사와 직물생산, 염색, 의류생산, 그리고 무역 등 원료의 생산에서 제품판매의 전과정을 기업 내부에서 실행시키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은 임금 인상, 국제 경쟁의 심화, 노동력 부족, 노사 갈등 등에 의해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직물, 염색, 의류는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주고 석유사 생산, 기술 개발, 해외 무역을 장악하여 중·소석유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이 대구 석유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과 세제, 노동력 수급, 임금,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금융과 세제의 측면에서 석유 대기업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노동력과 임금의 측면에서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노동력 부족과 임금인상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한국 석유산업은 생산비용과 자본금 구성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에 재료비와 자기자본 비중은 감소하고 노무비와 타인자본 비중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3).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기타 경비가 증가하

표 2 중화학공업정책이 대구 석유산업에 미친 영향

(단위: 업체, %)

구 분	금융과 세제	노동 수요와 공급	임금인상	석유기술
절대적 영향	3(3.4)	7(7.9)	16(18.4)	1(1.1)
상당한(75%)영향	27(30.7)	42(47.2)	41(47.1)	20(23.0)
어느정도(50%)영향	20(22.7)	17(19.1)	12(13.8)	28(32.2)
약간(25%)영향	27(30.7)	19(21.3)	17(19.5)	30(34.5)
영향 없음	11(12.5)	4(4.5)	1(1.1)	8(9.2)
계	101(100.0)	89(100.0)	87(100.0)	87(100.0)

자료: 설문 조사 결과, 1998.

표 3 한국 섬유산업의 생산비용과 운용자금 구성비(1977-1997)

(단위: %)

구분	년도	1977	1980	1984	1986	1988	1991	1993	1997
		생산비용	계료비 69.1 노무비 8.5 기타경비 22.4 계 100.0	60.6 12.8 26.6 100.0	60.7 10.5 28.8 100.0	61.7 10.1 28.2 100.0	58.4 10.2 31.4 100.0	55.9 12.6 31.4 100.0	53.4 13.5 33.1 100.0
운용자금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37.2 62.8 100.0	32.2 67.8 100.0	48.9 51.1 100.0	51.9 48.1 100.0	60.6 39.4 100.0	43.1 56.9 100.0	43.2 56.8 100.0	20.3 79.7 100.0

자료: 한국은행, 1977-1997, 기업경영분석.

는 것은 외주가공비 지출의 확대(1977년 7.1%, 1986년, 9.6%, 1997년 12.64%)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규모의 섬유기업들이 하청을 통한 생산의 외부화를 확대시킨 결과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노무비(임금) 상승은 중화학공업 성장에 따르는 임금상승이 섬유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1990년 이후의 급속한 임금상승은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활성화의 결과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총 운용자금에서 타인자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외부자금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한국 섬유산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고 타인자본,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자본에 더욱 종속화되었다.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은 국내 소비시장 중심의 생산체제를 해외시장 의존형으로 변화시켰으며, 수출 물량의 확보와 해외 판매망의 수립 등을 대기업과 무역업체들이 통제함에 따라 생산에만 전문화되어 있는 중·소섬유업체들은 이들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1975년부터 시행된 종합무역상사 제도는 대기업과 무역업체가 수출활동과 관련된 제반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함과 동시에 수출·입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중·소섬유업체들은 대기업과 무역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⁶⁾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이 과잉에서 부족상태로 변화됨에 따라 섬유산업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실행하였다.⁷⁾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과 섬유산업의 노동자 절대수가 감소하는

데, 이것은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표준화된 중화학공업의 정체 혹은 쇠퇴와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의 성장이 저임금 미혼 여성노동력을 흡수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의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증시켰다.

1980년 이후 한국 섬유·의복산업은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전체에 비해 단위당 노동비용과 명목임금은 높은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즉 저임금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복산업의 지속적인 생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섬유·의복업도 노동 대신에 기계 사용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타 산업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0~1994년 섬유·의복업의 단위 노동비용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노동집약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제조업 부문별 임금, 노동생산성, 노동비용의 증감률

(단위: %)

부 분	구 분	1974-1979	1980-1989	1990-1994
		중화학	명목임금 31.9 노동생산성 5.6 단위노동비용 24.9	15.1 7.1 7.4
경공업	명목임금 31.8 노동생산성 2.4 단위노동비용 28.7	14.6 4.8 9.4	16.2 7.8 7.8	
섬유·의복	명목임금 31.4 노동생산성 2.1 단위노동비용 28.8	14.7 4.1 10.2	16.9 5.0 11.3	

자료: 한국은행, 1995.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까지는 섬유산업이 주도하는 경향성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사분규의 수는 급증하는데, 1987년에 3,749건, 1988년에 2,256건, 1989년에 3,190건이 발생하였으며, 주요한 원인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단체협약의 이행 등이었다. 노사분규의 결과 임금상승, 노동조건 개선 등은 노동집약적인 한국(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3.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의 지역 내적 요인

1) 대구 섬유산업의 제품 생산과 판매

대구의 섬유산업은 직물생산이 특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섬유 생산시설 구성 변화를 보면, 1973년에는 직기(38,476대), 준비기계(12,308대), 편직기(3,127대), 염색기(684대)로 구성되었고, 1993년에는 직기(43,463대), 준비기계(10,352대), 편직기(3,398), 염색기(2,214대)로 구성되어 직물생산 중심의 생산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한국은행 대구지점 외 2, 1974; 대구직할시, 1993). 따라서 대구 섬유산업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사 구입·조달지역과 방법 그리고 직물의 판매지역과 방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대구 섬유업체들은 원사를 주로 대구와 경북·경남에서 구입·조달하는 반면 해외에 의존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사를 복수 지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특정지역에서 70% 이상의 원사를 구입·조달하는 업체의 76.8%가 대구와 경북·경남에서 원사를 구입·조달하고 있다. 반면에 9.7%만이 해외에서 구입하여 원사구입에 있어서 대구와 경북·경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대구와 경북·경남에 대규모 원사업체들의 입지비율과 대구 직물업체의 하청비율이 높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구 섬유산업은 소수의 원사 생산 대기업과 다수의 직물생산 중소기업간의 긴밀한 공급네트웍을 기반으로 한

국지적 생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 입지한 대규모 원사업체들은 폴리에스테르사, 나일론사, 면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원사업체로는 제일합섬, 동국합섬, 코오롱, 갑을방직, 대한방직 등을 들 수 있다(한국섬유기술진흥원, 1995). 이들 원사업체들은 국내 원사의 공급과 가격 결정에 과점체제를 수립하여 대구의 중·소직물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원사 구입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하청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혹은 현금이나 어음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정 구입방법에 70% 이상을 의존하는 경우를 보면, 86개 업체 중에서 37개 업체(43.0%)는 하청 모기업으로부터 원사를 조달 받는 반면에 27개 업체(31.4%)는 현금으로 원사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구매의 경우에는 자금난, 물량부족, 환율인상에 따른 원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사는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제품의 판매대금은 어음이나 외상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섬유업체들은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시장은 1972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급속하게 변화했다. 1960년대까지는 대구, 경북 및 서울이 대구 섬유제품의 중요한 소비시장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 이후 해외지역이 핵심적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였다(표 5). 1970년대 초반에 형성된 지역 섬유제품 소비의 해외 의존적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구 섬유제품의 판매형태는 크게 시장판매, 하청, 주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수는 시장판매, 주문판매, 하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은 주문과 하청생산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표 6).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8개 업체 가운데 41개 업체는 생산품을 하청 모기업에 대한 납품이, 34개 업체는 시장판매가 그리고 13개 업체는 주문판매가 주된 판매형태이다. 즉 대구의 중·소 섬유업체들은 하청 모기업, 무역회사, 대형 도매상에 대한 종속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대구 섬유제품의 수출은 197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에 집중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 유럽,

표 5. 섬유제품의 지역별 판매비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지역	대구·경북	부산·경남	서울	기타	해외	계
1955-1961		48.2	5.0	28.6	12.5	5.7	100.0
1962-1966		52.6	5.8	22.7	12.7	6.2	100.0
1967-1969		53.6	6.1	19.8	12.8	7.8	100.0
1972		26.3	4.8	19.5	6.6	42.8	100.0
1973		23.4	4.8	16.1	6.2	49.4	100.0
1993		32.4	4.1	16.5	15.6	31.4	100.0
1998		38.5	5.1	7.7	7.7	41.0	100.0

주: 조사대상 기업체수는 1955-1961년에 115개, 1962-1966년에 177개, 1967-1969년에 262개, 1972년에 477개, 1973년에 559개, 1993년에 1,318개, 1998년에 78개 업체임.

자료: 경상북도, 1969: 한국은행 대구지점 외 2, 1974: 대구직할시, 1993: 설문 조사 결과, 1998.

표 6. 대구지역 섬유제품의 판매 형태

(단위: 업체, %)

연도	내 수					수 출				
	시장 판매	하청	주문 판매	기타	계	시장 판매	하청	주문 판매	기타	계
1988	45 (32.4)	55 (39.6)	33 (23.7)	6 (4.3)	139 (100.0)	22 (11.6)	93 (48.9)	64 (33.7)	11 (5.8)	190 (100.0)
1993	537 (40.2)	268 (20.1)	485 (36.3)	46 (3.4)	1,336 (100.0)	28 (5.3)	201 (38.2)	269 (51.1)	28 (5.3)	526 (100.0)

자료: 한국은행 대구지점, 1988: 대구직할시, 1993.

중동 등 수출지역이 다변화되었다. 그러나 대구 섬유제품의 수출시장은 홍콩, 두바이, 멕시코 등 후발국에 편중되어 있고, 중심 수출품은 폴리에스테이며, 지역 상품의 수출을 담당하는 무역상사는 1980년대 중반에 120개 내외에서 1997년 약 7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과다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7).

2) 대구 섬유기업의 형성과 기업간 관계

대구 섬유산업의 발달에 있어서 1970년 이전까지는 원사구입과 제품판매 관련 유통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사 도매상인들은 상품의 유통구조와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소수 도매업자들은 산업자본가로 전환하였다(박희진, 1997: 경상북도, 1969). 그 중에서 소수의 섬유업체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 섬유산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1986년 대구시내 종업원 500명 이상의 섬유업체

가 모두 12개이다 지역 섬유업체에서 차지하는 업체수의 비중은 극소하지만, 이들 섬유 대기업들의 발전과 점은 곧 대구 섬유업체 발전의 중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 최신 섬유기계 도입을 통해 자동화를 제고와 대량생산체제의 초석을 다져온 이들 섬유 대기업들은 수산업에서 수백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수출증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섬유 대기업들의 창업은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대기업으로 부상하여 지역 섬유업체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섬유기술진흥원, 1990, 571-572)

대구의 대표적인 섬유대기업인 동국그룹은 1950년 7월에 소규모 직물 생산공장을 대구시 북구에 설립하였고, 196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국내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전환하면서 빠른 성장을 하였다. 1966년에는 수출실적이 13만 9천달러에 불과했으나, 1974년에는 2천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고 동국은 1983년도에는 수출순위 10위로 한국 10대 무역상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섬유직물 분야에서

한국 수출 전체의 10%를 점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섬유기술진흥원, 1990).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에서 대기업의 수는 감소한 반면에 중소기업의 수는 증가하였다.⁸⁾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섬유업체들이 임금 상승, 노동력 부족, 노사갈등, 소비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의 생산, 기술 개발, 판매 부문을 제외한 부분들을 외부화시킨 결과이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소규모 섬유업체가 증가하였다. 이들 업체 중에서 다수의 소규모 섬유기업가들은 대(중)규모 섬유기업에서 근무하였거나 섬유관련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지역 섬유산업 업계에서 형성했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이용함으로써 창업이 용이하였던 것이다.

대구 섬유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고리가 하청조직인데,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 대구의 868개 섬유업체 가운데 440개 업체가 하청생산을 하고 있었으며, 내수보다 수출 생산업체의 하청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한국은행 대구지점 외 2, 1974). 이러한 지역 섬유산업의 하청 생산구조는 199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101개 기업체 가운데 34개 업체는 원료를 하청 모기업으로부터 100% 공급받고 있었으며, 37개 업체는 생산제품을 하청 모기업에 100% 납품하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는 자동섬유기계와 소수 기능인력을 이용하여 생산에만 전문화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에 대(중)기업의 새로운 생산전략으로 소사장제가 채택되었다. 소사장제도는 대(중)기업들이 1987년 이후 급속히 증가된 노동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

한 형태의 노동 문제를 소(영세)기업들에게 전가시켜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려는 전략이다. 현지조사에서도 중소기업으로부터 생산 시설을 임대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소사장제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사장제도 하에서 영세기업의 사장은 전문 기술자로 생산시설을 임대한 뒤 가족노동력(주로 부인)을 포함한 소수의 기능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에만 전문화되어 있었다. 하청제도와 소사장제도의 발전은 지역 섬유산업을 더욱 분절화와 영세화시킴과 동시에 대(중)규모 섬유업체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3) 대구 섬유기업의 자금 조달, 사용 및 재투자

대구 섬유산업은 소규모 자본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 대상 95개 업체 가운데 31개 업체(32.6%)는 총자본금이 5억원 미만이었다. 그리고 총자본에서 자기자본의 비율이 1973년 51.1%에서 1992년의 35.3%로 낮아짐에 따라 외부자본 의존도가 증가하였다(한국은행 대구지점 외 2, 1974; 대구직할시, 1993).

외부자본의 조달은 대규모 업체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소규모의 기업들은 사채나 외상거래에 의존하고 있다(표 7).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영세)규모 섬유업체들의 대부분은 사채, 친척 혹은 친구의 돈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채의 이자율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소(영세)섬유업체들은 외부자금 이용에 있어서 대(중)기업보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7 대구 섬유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율

(단위. %)

규모 \ 조달처	은행	제2금융기관	사채	외상매입	차관 등 기타	계
20명 미만	37.5	12.5	22.5	25.0	2.5	100.0
20 - 99명	72.0	8.5	5.9	8.5	5.1	100.0
100 - 299명	85.9	4.2	-	4.2	5.7	100.0
300명 이상	87.5	4.7	-	7.8	-	100.0

자료 한국은행 대구지점, 1988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약한 섬유업체들은 은행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소규모 섬유업체들은 친구, 친척, 이웃 등을 통해 사채를 이용하는데, 은행 대출자금보다 높은 이자율(연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은 은행 이용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면담조사)

뿐만 아니라 대구 섬유산업은 금융기관 혹은 사채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타 산업부문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높은 금리, 대출관행, 대출액의 한도 등 자본조달상의 어려움이 지역 섬유산업 발전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계·금속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대함에 따라 섬유기업들이 금융기관과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점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이후 외부차입 자금은 원료 구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설비투자, 임금지불, 부채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총자본이 10억 이상의 기업들은 원료구입과 설비투자, 5억 이하의 기업들은 원료구입과 임금지불에 외부 차입자금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표 8). 즉 소규모 섬유기업들은 설비투자의 비율이 낮아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섬유산업부문에서 창출된 이윤의 재투자를 고찰하기로 한다. 기업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통해서 축적된 자본을 다양한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생존 혹은 발전할 수 있

다. 섬유 관련기관 전문가와의 면담에 의하면, 1980년 후반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섬유산업 이외 부문으로의 재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구 섬유산업의 상대적 침체와 부동산과 건설 경기의 과열 그리고 서비스의 팽창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섬유업 자체에 대한 재투자는 설비의 확장,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제품 개발 등에 이루어졌다.

4)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의 변화

1970년대 중반까지 대구 섬유산업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섬유업체들은 대구와 경북·경남 농촌지역에서 과잉으로 공급되는 저임금 미혼 여성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추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말 대구와 경북의 섬유노동자 총 수는 17,097명이며, 여자가 12,689(74.24%)명으로 여자 노동자의 비율이 높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생산직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학력과 연령별 구성비는 남자의 경우 국졸이 47%, 중졸이 35.5%이며, 평균 연령은 28세이지만 여자는 국졸이 68.8%, 중졸이 27%이며, 평균 연령은 21세로 남자에 비해 학력과 연령이 낮았다. 관리직과 기술직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섬유산업의 성적 노동분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경상북도, 1969). 면담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 경북, 경남, 전라도의 농촌에서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섬유업체들은 저임금, 저학력의 노동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표 8. 대구 섬유업체의 외부자금 사용용도

(단위: %)

규모	용도						
	업체연변	설비투자	임금	원료구입	부채상환	기타	계
총자본 10억 이상	1	30.0	-	50.0	20.0	-	100.0
	2	10.0	15.0	40.0	15.0	20.0	100.0
	3	30.0	10.0	-	20.0	40.0	100.0
	4	50.0	15.0	15.0	10.0	10.0	100.0
총자본 5억 이상	5	20.0	-	60.0	20.0	-	100.0
	6	30.0	30.0	-	-	40.0	100.0
	7	-	30.0	50.0	10.0	-	100.0
	8	-	30.0	50.0	-	20.0	100.0

자료: 설문 조사 결과, 1998.

일을 시켰으며, 취업된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저항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하였다.¹⁰⁾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이 과잉에서 부족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와 섬유기술진흥원이 설립되고 기혼 여성 노동력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운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지역 섬유기업체들은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켰다.¹¹⁾ 1980년대 대구 섬유산업의 노동력, 특히 저렴한 여성노동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 설립 배경은 아래에 잘 표현되어 있다.

“섬유업계 종업원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며, …… 이러한 섬유업계의 고용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산업체 특별학급 또는 부설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나 종업원 양자에게 모두 일정한 이득을 가져준다. 우선 가정형편상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종업원에게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 측면에서 종업원 개인에게 … 비람직한 현상이다. ……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안정적인 종업원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러한 안정적 수급관리는 이직율이 높은 섬유업체의 이직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섬유기술진흥원, 1990 496)

1977년 9월에 설립된 경북섬유기술진흥센터(현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도 섬유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섬유기술진흥원, 1990).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산업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훈련생의 대부분은 영세 농어민 자녀와 무기능 불우 청소년으로, 이들은 경북도청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에서 모집되었다.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양성된 여성노동력은 3,648명이며,

대부분은 중졸 학력을 지닌 15~17세의 미혼여성이었다(섬유기술진흥원, 1990). 1980년대 후반 이후 섬유기술진흥원은 여자 기능공 양성사업을 중단하고 변화하는 세계 섬유산업에 지역 섬유산업이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위탁연수, 기술자문, 그리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미혼여성 노동력만을 이용하던 대구 섬유산업에 기혼여성 노동력이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²⁾ 기혼여성 노동력은 지역 섬유노동의 일부분을 담당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 미혼여성들이 3D업종으로 인식된 섬유업에 진입을 회피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하는 노동력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지역 섬유노동력의 일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한 기혼여성 노동력은 1980년대 후반 미혼여성들이 3D업종으로 인식된 섬유업을 회피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하는 노동력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면담조사에 의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섬유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들이 섬유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와 섬유업과 무관한 기혼여성 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취업하는 형태로 양분되고 있었다. 지역의 기혼여성들은 대(중)섬유업체보다 임금 수준은 낮지만 가사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지에 인접한 소규모의 섬유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섬유기업들은 기혼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자율권(유연성)을 부여하면서 주부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섬유공장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주택지역이나 준공업지대의 입지를 선호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역 노동시장은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이전 시기와 차별성을 보인다.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센터의 노동력 공급기능의 약화, 기혼여성 노동자 증가, 그리고 해외 노동자 유입이 중요한 특징이다. 지역 섬유산업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발생한 복잡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었다.¹³⁾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1991년 4만명에서 1996년 16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노동자의 36%(5만 7천명)는 연수생이

고 나머지 64%(10만명)는 미등록 노동자이다(이혜경, 1997).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섬유산업에 취업했다. 1993년 말 대구의 1백여 염색업체에서 1,500여명의 외국인 연수노동자가 취업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교포,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노동자들도 소수가 포함되어 있다(대구상공회의소, 1993).¹⁰⁾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경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들간에 경쟁력이 증가되었다. 특히 기계·금속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성장은 섬유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대구 제조업체들의 반 이상이 노동력 공급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 원인은 생산인력의 부족, 건설 및 서비스업으로의 이직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나타났다(대구상공회의소, 1996).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구 섬유업체들은 노동력 확보를 둘러싸고 업체간의 경쟁이 강화되었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섬유업체 내부 뿐만 아니라 타산업들과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 건설업, 기계·금속업, 전자산업 등 섬유업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모집은 공개채용, 직업기관의 소개, 광고, 학교 추천, 친구와 동료의 소개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구 섬

유업체들은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연고자 소개, 스카웃, 친구 소개 등 비공식적인 경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1990년대 중반의 조사에 의하면, 섬유노동자 39명(남자 25명, 여자 14명) 가운데 31명은 친척, 친구, 이웃 등을 통해서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적인 채용시험이나 직업기관의 소개에 의존하는 비율은 아주 낮았다(Park, 1997). 즉 대구의 섬유산업 종사자들은 친구, 친척, 이웃, 회사동료, 학연 등과 같은 지역의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경영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대(중)기업보다 소(영세)기업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사회 연결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 확보된 노동자들이 오히려 근무에 충실하며,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0년대 말부터 대구 섬유산업, 특히 직물제조업체는 자동직기를 도입함에 따라 노동과정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대구의 직물업체들은 전통적으로 북직기에 의존하였으나 1970년대 말 이후 고속 자동직기(워터제트룸, WJL)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는 임금상승, 노사분규의 심화 그리고 노동력 공급의 부족 등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전통적 생산방식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총 직기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무북직기(고속 자동직기) 수는 증가하여 1997년에 북직기 수를 능가하고 있다(표 10). 이 결과 직기 자동화율은 1988년에

표 9. 기업간·부문간 노동력 확보 경쟁

(단위: 업체, %)

경쟁정도	섬유업 내부		섬유업과 타산업	
	1980년대 중반-후반	1990년대 중반-후반	1980년대 중반-후반	1990년대 중반-후반
심한 경쟁	6(8.7)	8(8.5)	4(5.8)	3(3.2)
상당한 (75%)경쟁	29(42.0)	32(34.0)	13(18.8)	27(28.7)
어느정도 (50%)경쟁	17(24.6)	27(28.7)	21(30.4)	28(29.8)
약한 (25%)경쟁	9(13.0)	12(12.8)	13(18.8)	13(13.8)
경쟁 없음	8(11.6)	15(16.0)	18(26.1)	23(24.5)
계	69(100.0)	94(100.0)	69(100.0)	94(100.0)

자료: 설문 조사 결과, 1998.

표 10 대구 섬유산업의 자동(무복)직기 변화(1989-1997)

(단위: 대, %)

직기 \ 년도	1988	1990	1993	1995	1997
복직기	102,922(84.8)	78,348(75.9)	52,003(57.8)	44,966(41.2)	37,858(45.4)
무복직기	18,550(15.2)	24,801(24.1)	37,915(42.2)	42,833(48.8)	45,509(54.6)
계	121,472(100.0)	103,097(100.0)	89,918(100.0)	87,799(100.0)	83,367(100.0)

주: 1) 무복(자동)직기에는 워터제트름, 에어제트름, 레피어, 그리퍼가 포함됨.

2) 무복직기의 비율이 직기의 자동화율을 표시함.

자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5, 1997.

15.2%, 1993년에 42.2%, 그리고 1997년에 54.6%로 높아졌다. 섬유업체들이 자동직기를 도입함에 따라 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근로자 개인별 노동강도는 오히려 강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의 지역 내적인 요인별 특성을 제시한 것이 표 11이다. 요약하면 대구 섬유산업은 1970년대 초반에 화학섬유의 대량생산과 수출 체제를 형성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생산체제가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는 소수 대기업들이 화학섬유의 원사 생산 시설을 대구와 경북에 입지시킴에 따라 직물, 염색, 편직에 필요한 원료를 지역내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또한 정부의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정책에 의해 대구의 섬유제품이 해외로 수출하게 됨에 따라 성장·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저임금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후발 개발도상국의 중·저가 섬유제품은 해외소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대구의 대량생산과 수출체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노사갈등, 임금인상, 작업환경의 개선 등 복잡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노동력 공급이 거의 중단되면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심각해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섬유산업은 외국인과 주부 노동력을 유입하거나 자동섬유기계 도입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대량생산체제를 지속시킬 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체제로의 전환에는 한계성을 가진다.

4. 대구 섬유산업의 입지 변화

1970년대 이전의 대구 섬유산업의 생산시설은 중구의 동인동과 달성동, 서구의 내당동과 비산동, 북구의 칠성동과 침산동 등 대구시 중심 혹은 근접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다(홍경희, 1969; 경상북도, 1969).

“경북 섬유공업은 대구 중심이고 대구 섬유공업의 입지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도시밀집형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인지인자로는) 교통편리가 (전체 448개 업체 중에서) 120개 업체로서 26.8%로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고 종업원 확보가 113개 업체로서 25.2%로 2위의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규모가 큰 업체에서는 외부경제시설인 용수 및 교통 편리 등이 유리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다 종업원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중규모 이상의 업체에서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지만 소규모 업체에서는 중요한 입지요인이므로 작용하고 있었다”(경상북도, 1969, 58-64).

표 11. 대구 섬유산업의 구조변화(1970-1990)

		1970	1980	1990
지역경제	구조	← 섬유산업 중심	← 기계	← 금융업, 서비스업 증대
	섬유산업비중	← 절대적	←	← 약화
섬유산업	생산체제	← 대량생산체제	←	← 재구조화
	소비체제	← 대량수출체제	←	← 재구조화
	소비시장	← 국내	←	← 해외
	노동시장	← 공급과잉	←	← 공급부족
	노동과정	← 숙련노동	←	← 자동화에 의한 노동대체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의 입지 변화 특성은 대구시 중심에서 외곽지대로의 이동으로 요약된다. 대구시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는 지역으로, 1973년에 55개 기업체에 2,150명이 섬유산업에 종사하였으나 1998년에 9개 기업체에 112명만이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구, 서구, 동구의 섬유산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한 뒤 감소하지만, 중구와 남구에서는 197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북구에 섬유노동자가 가장 많았지만, 이후는 빠르게 감소

하였다. 반면에 서구의 감소폭은 북구에 비해 낮아 현재 서구가 섬유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1988년 1월 신설된 달서구는 서구와 함께 대구 섬유산업의 중심공간으로 등장하였다. 1995년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의 섬유업체 종사자도 증가되고 있으나 동구의 섬유산업은 침체하고 있다(그림 1).

이상과 같은 대구시 내부공간에서의 섬유산업의 입지 변동을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는 1970년대 이후 화학섬유를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의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규모확대와 숙련노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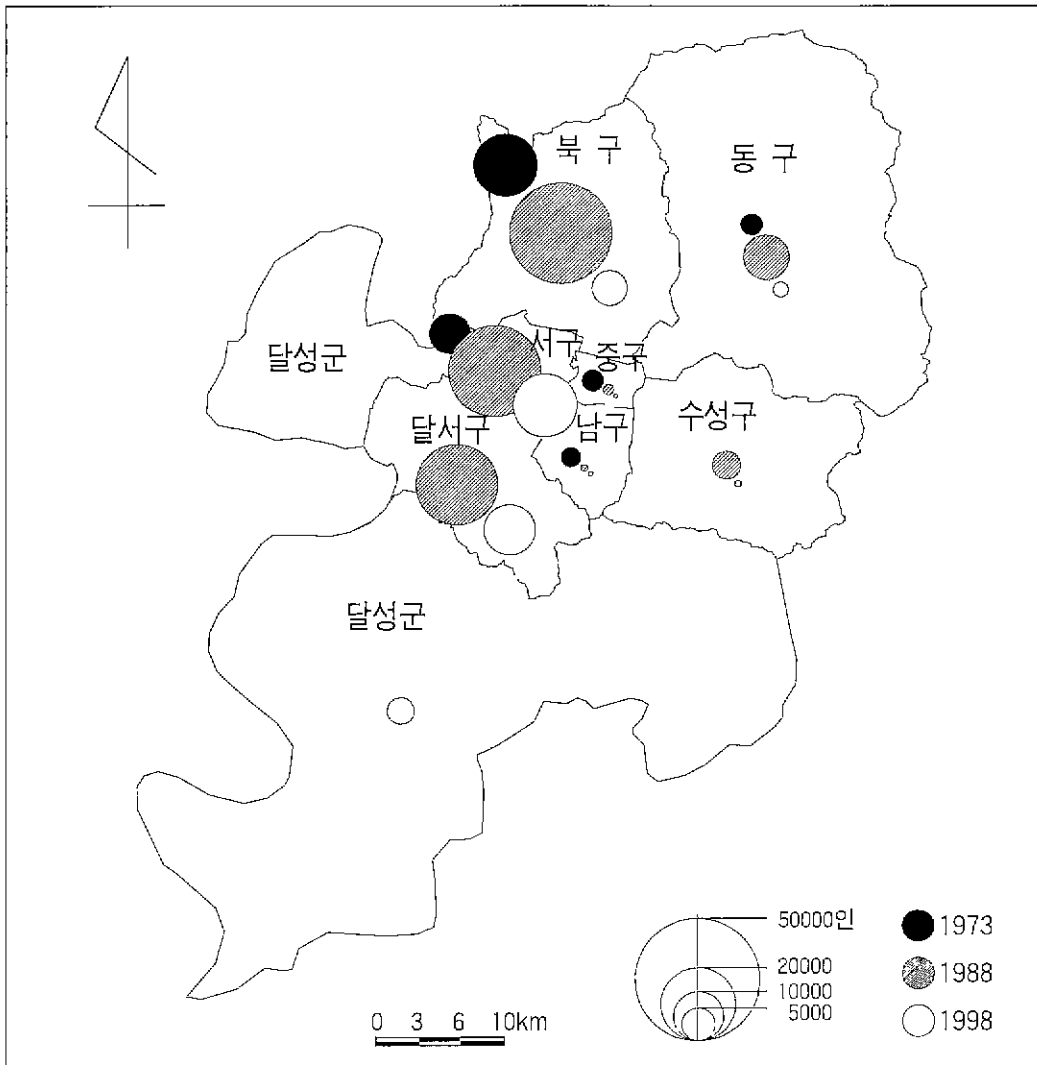


그림 1. 대구 섬유산업의 입지 변화(종원업수)

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의 개별업체 차원의 재구조화 전략 외에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와 지방공단 조성을 들 수 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생산시설의 입지는 공간의 범위를 축소시켰다.¹²⁾ 또한 1970년대 섬유공업의 핵심 입지 지역인 시내(inner city) 지역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시외곽의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총 91개 업체 가운데 43개 업체(47.3%)는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가 섬유 생산시설의 입지 공간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대구시의 지방공단 설립도 섬유산업의 시설 입지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대구시는 수출 증대를 위한 공단조성법(1964년)과 지방공업발전법(1970년)에 근거하여 1960년 후반 이후 북구, 서구, 달서구를 중심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하고(표 12), 시내에 분산된 제조업체의 공단 내 이주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의 건설과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구지역 내에서의 이전과 동시에

표 12. 대구시 주요 공업단지 현황

(단위: 업체, %)

구분	제3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성서공단 ¹⁾
위치	북구	서구	서구	달서구
조성기간	1967-1968	1975-1978	1979-1980	1984-1998
섬유	84(16.0)	207(51.7)	113(100.0)	321(29.4)
화학	6(1.1)	15(3.8)	-	55(5.0)
기계·금속	376(71.7)	80(20.0)	-	620(56.7)
기타	59(11.2)	98(24.5)	-	97(8.9)
계	525(100.0)	400(100.0)	113(100.0)	1,093(100.0)

주: 1) 1차 단지는 1984-1987년에, 2차 단지는 1988-1992년에 완공되었으며, 3차 단지는 개발 중임.

2) 기타에는 정유, 화학, 기계, 금속을 제외한 전 업종이 포함됨.

자료: 대구상공회의소, 1997.

1980년대 말 이후부터는 대구시역을 벗어난 경북과 해외로 자본과 생산시설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경북지역의 섬유공업은 1988년 139개 업체(종업원 24,349명)에서 1997년에는 335개 업체(종업원 33,312명)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는 대구 섬유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가격과 저임금 노동력 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력난 및 공장부지 확보난 등에 따라 대구에서 경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섬유업체의 탈대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남일보, 1995. 8.11)

대구시의 지가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높은 비율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지가 상승은 섬유산업이 대구시 내부에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면서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시외지역으로 섬유 생산시설을 이동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구시 지가의 상승은 섬유산업에 두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서 이윤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대도시 토지를 우선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도시 내 입지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둘째, 지가의 빠른 상승은 섬유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발생한 이윤을 섬유업보다 높은 수익이 전망되는 토지에 재투자하여 자본을 축적하려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섬유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섬유업체 절반 이상은 지가 상승이 섬유생산시설 입지공간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95개 섬유업체 가운데 63개 업체들은 대구지역내에서 섬유업체의 공장부지 확보에 있어서 타업종(기계, 금속, 건설, 서비스업)과 어느 정도의

표 13. 대구시 지가변동률(1975-1996)

(단위: %)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6
대구	13.59	33.01	82.62	4.05	7.0	6.6	57.68	35.15	13.74	-7.77	1.09
서울	31.63	135.70	6.40	3.56	57.7	8.1	6.29	33.54	11.15	-8.72	0.91
부산	-	93.59	14.20	6.81	15.4	8.7	46.50	17.49	14.69	-6.77	0.40
전국	26.99	48.98	16.63	7.51	18.5	7.0	14.67	31.97	12.78	-7.38	0.95

주: 지가변동률은 매년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변동률은 기준년도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건설교통부, 1997.

경쟁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구시 경제활동의 다양화와 지가의 상승으로 섬유산업이 대구지역내에서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조사대상 98개 업체 가운데 83개 업체는 대구시 외부지역인 경북 혹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동을 원하는 소수의 업체들도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지역을 최우선 입지로 선택하였다. 즉 대구 섬유업체의 경우 지가요인보다 오히려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 동업자, 도매상인, 대(중)기업 중간관리자들과 빈번한 접촉 등의 요인으로 역내입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면담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달성공단) 내에 공장이 입지하여 좋은 점은 시내와 비교해서 부지 가격이 저렴하고 소음공해에 대한 규제가 완화 혹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 내에서 노동력 구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시내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서 노동력 확보가 쉽다. 시내보다 교외 혹은 시외 입지기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회가 되면 대구시내로 공장을 옮기고 싶는데 이유는 집과 친구들이 많고 또한 동료들과 자주 만날 기회도 있어 기술 신제품, 시장, 정책, 사회변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기회가 많다.’(면담조사, 1998)

그리고 대구 섬유산업의 해외 시설 이전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임금 상승, 노동조건 개선,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초반 선진국 섬유산업이 재구조화를 시도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이전시킨 뒤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를 이용하여 섬유제품을 생산·판매하려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⁶⁾

5. 지역경제 발전 전략의 정책적 함의

대구 경제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침체는 지역 사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구 경제발전을 위해 섬유

산업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 세계와 국가 경제체제의 급속한 변화는 대구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구축, 신속대응(Quick Response) 체제의 수립, 생산시설의 자동화, 패션·디자인 산업의 육성, 유통·무역과 관리기능의 강화, 고급 기술·연구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전략들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7; 대구직할시, 1993; 매일신문, 1998). 이러한 전략들은 1970년대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수출 체제에 의해 유지된 대구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 방향 설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대구지역 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기업, 노동, 그리고 공간의 관점에서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구경제는 세계와 한국경제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중반 이후 기계·금속업과 서비스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중심인 섬유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할 경우, 섬유산업은 타산업들과 경쟁적 관계에 위치하게 된다. 즉, 지역경제 발전전략이 전자, 기계·금속, 서비스업에 높은 비중을 두면 섬유산업의 중요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역 혹은 국가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섬유산업 재구조화의 방향 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 기계·금속, 생산자 서비스업과 긴밀하게 연관시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섬유와 기계·금속업을 연관시킨 섬유기계업을, 혹은 섬유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을 연결시켜 관리, 연구·개발, 유통,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소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공존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과 중·소섬유업체들간에 신뢰와 상호 교환을 바탕으로 정보교환, 신기술과 제품의 개발, 공동 판매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 구축이 요청된다. 지역의 소수 대기업은 원료 생산,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판

때에 있어 우위를 점유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하청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지역 섬유산업에서 실천되고 있는 하청은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 형태가 아닌 수직적이고 지배·종속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축적시킨 기술과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갖는 장점과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상호 협력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대구의 중·소 섬유업체들간에도 신뢰와 상호공존에 바탕을 둔 협력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 혹은 무역업체에 의존하여 생산에만 전문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방향설정에 있어 하나의 핵심적 과제는 다수의 중·소 섬유업체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들 수 있다. 지역 섬유업체들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망의 구축과 지속은 지역기업체, 자치행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의 관점에서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는 생산에 있어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고속섬유기계 도입을 통해 자동화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성능 자동섬유기계 도입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의 섬유제품과 새로운 기술개발은 숙련, 기술, 연구·개발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섬유업체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재교육,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 공존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지역경제 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지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 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섬유산업이 저임금, 장시간,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탄압의 환경 속에서 형성된 노동제도를 유지하면서 숙련 혹은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역 섬유산업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역 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지역 섬유산업의 재구조화 정책은 생산시설의 입지공간 확보, 자본과 생산시설의 시외·역외 유출에 따른 섬유산업의 공동화 현상의 방지, 그리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섬유업체 본사와 도매·무역 기능의 대구 이전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대구시 내부에 섬유생산 시설의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가, 도시계획, 공간이용에 대한 경제활동간의 경쟁, 부동산 투기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다수의 중·소 섬유업체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의 입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경북이나 해외지역에 자본과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역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대구 섬유산업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유 생산기능과 생산자 서비스 기능(관리, 무역, 연구·개발, 정보)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문간·업체간의 대구시와 시외, 해외를 연결하는 역내 역외의 연결망의 구축·강화가 요구된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섬유산업이 대구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진행된 재구조화 과정을 밝히고, 지역경제 발전전략 수립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는 세계 섬유산업 및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되어 왔다. 1950년대 이후 선진국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의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세계 섬유산업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197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재구조화는 개발도상국들이 섬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세계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후발개도국 섬유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중·저가 섬유제

품의 대량생산과 수출에 전문화되어 있는 대구 섬유산업의 구조변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세계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발생한 개발도상국들의 섬유산업 발전조건은 국가의 경제발전 정책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전자산업,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은 한국 경제구조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국가경제에서 섬유산업의 위상이 낮아졌으나, 대구 섬유산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과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에 힘입어 천연섬유에서 화학섬유 중심으로의 생산체제 전환과 해외 수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후발 개도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는 대량생산과 대량수출에 기초해서 발전한 대구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공급부족 현상과 함께 1987년 6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발생한 임금 상승, 노동조건 개선, 국가 노동정책의 변화 등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구 섬유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소수 대기업이 원료생산,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판매망을 장악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구조는 1980년대 이후 변화된 세계 섬유산업과 국가 경제구조하에서 대구 섬유산업이 생존·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기술발전, 유연적 생산체제를 수립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섬유기업의 축적된 자본의 재투자 방향은 지역 섬유산업의 재구조화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섬유 대기업은 전자, 유통, 정보산업, 무역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섬유업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섬유산업 자체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대구의 섬유기업들은 부동산, 서비스업 등에 자본을 재투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70년대 이후 대구지역 노동시장의 변화는 3단계로 구분된다. 1970년대 중반 이전은 지역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과잉으로 공급되는 시기로 섬유업체들이 노동력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이후 지역 노동시장이 공급 과잉에서 부족으로

전환된 시기로 지역 섬유산업도 변화된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 섬유업체들은 정부의 협조 하에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또한 기혼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노동시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이전과 차별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특징으로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센터의 노동력 공급기능의 약화, 기혼여성 노동력 증대, 해외 노동자 유입 등이다. 대구 섬유산업은 노동과정에서도 재구조화를 시도하는데, 이것은 1970년대 말 지역 섬유업체들, 특히 직물업체가 자동섬유기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동과정의 재구조화는 제품생산에 있어 노동의 투입량을 감소시키고 자동섬유기계의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동 섬유기계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구 섬유산업은 1970년대 이전에 대구시 중심 혹은 중심외곽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차 대구시 외곽지역으로 집중하였다. 이러한 입지변화는 기업의 재구조화 전략과 대구시 도시계획과 지방공단 조성이 맞물려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구 섬유산업은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이나 해외로 자본과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가의 상승,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르는 임금 상승, 노동조건 개선,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대구 지역경제에서 최근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타 부문과 섬유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생산에만 전문화되어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자본, 기술, 판매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간에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공존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기업간에 노동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노동시장에서 섬유산업이 기술 혹은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노·사 공존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상이한 경제공간간의 상호 관계적 관점은 지역

경제(산업)의 재구조화를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구조화는 한 두 개의 일반적 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현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이한 공간규모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한국의 도시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될 때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역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재구조화 논의가 가능하다. 다양한 공간규모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註

- 1) 아시아 국가의 화학섬유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일본 화학섬유산업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1951년 일본의 거대 섬유기업인 Toray사가 미국 DuPont사의 허가 하에 나일론사를 최초로 생산하면서 화학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9개 주요 섬유 회사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폴리에스테르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화학섬유 생산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화학섬유 생산량은 1955년 54,000톤에서 1965년 380,000톤의 증가를 보였으며, 1970년에 미국 다음으로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Clairmonte and Cavanagh, 1981, 116-117).
- 2) 미국도 한국 섬유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였지만, 투자 금액면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대단히 미약하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의 섬유와 의류 산업에 미국과 일본의 투자 금액은 82만 달러와 6,647만 달러이다(Kim, 1995, 68). 그러나 미국은 섬유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한국 나이론과 대한 화섬은 미국의 컴텍스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나이론과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게 되었다(임종철·이천표, 1993, 510).
- 3)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선진국 규제는 1950년대 후반 일본 면제품의 미국 수출증대에 따르는 자

율적 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61년과 1962년에 국제면제품 단·장기협정(Short-and Long-Term Arrangement, STA/LTA)이 발효되면서 선진국에 수출되는 면제품에 대한 공식적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후 MFA(Multi-Fiber Arrangement)가 1970년 초반에 체결되어 1994년까지 세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Aggarwal, 1985; Finger and Harrison, 1996).

- 4) 섬유수입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는 한국 섬유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의류 수출의 경우,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실행된 1974~1993년까지 한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의류를 공급하는 다섯 번째 이내의 중심 국가에 위치하고 있었다(World Trade Organization, 1995, 122-123).
- 5)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섬유, 의류업 부문에 높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 보험, 도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6~1992년 동안 국내산업에 총 3,822백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32.3%는 서비스업, 13.8%는 전기·전자업, 8.6%는 기계·금속업이 차지한 반면에 섬유와 의류업은 단 1.5%만을 점유하였다(내무부, 1993, 291). 한국 산업은행의 산업별 대출액의 경우, 1970년대 후반까지 섬유공업은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지만, 이후 대출액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금속·기계공업에 대한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산업은행, 1994).
- 6) 1970년대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여 섬유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삼성, 대우, 한일합섬, 효성, 선경 등을 들 수 있다(장지상, 1992, 72).
- 7) 197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자제한 논의는 배무기(1982)를 참조하기 바라며,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내용은 대구 섬유산업 재구조화의 내적 요인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 8) 대기업체수는 1988년에 32개, 1993년에 22개, 그리고 1995년에 10개로 감소한 반면에 중소기업체수는 1988년에 1,920개, 1993년에 2,077개 그리고 1995년에 2,27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내무부, 해당연도, 한국도시연감).
- 9) 대구권 지역의 하청 섬유업체(1,9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청모기업이 30.9%(591개)이고 1차 하청업체가 57.9%(1,105개)였으며, 2차 하청업체도 7.9%(151개)를 차지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기본 형태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제조공장만 갖추고 있는 경우(55.6%)가 압도적이었다(대구직할시, 1993, 58-61).
- 10) 면담한 직수아주머니(1948년생)는 15세부터(1963년) 대구의 섬유공장에서 관권(실감는 일)으로 일을 하였다. 일을 시작한 동기는 집이 가난하여 여자인 본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 남의 집에서 얼마동안 식모살이를 한 후 섬유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취직한 섬유공장은 목재 직기 40-5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12시간(2교대) 일을 하였고, 월급은 2만원 정도였다.
- 11) 대구지역 최초의 업체 부설학교는 1983년 갑을방직에 의해 설립된 이현여고이며, 이후 특별학급과 부설학교 설립의 수는 증가하였다. 1988년에 1개의 중학교(4학급)와 8개 고등학교(13학급)에 산업체 특별학급이, 4개의 산업체 부설고교가 설립·운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여 1996년에 6개 고등학교(30학급)에 산업체 특별학급과 1개의 산업체 부설고교(이현여고)만이 남게 되었다(대구광역시 교육청 총무과 감사계와 면담 자료).
- 12) 예로 미혼 여성만을 고용하던 제일모직은 1983년 회사규정에 미혼여성의 취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1984년에 전체 여성노동자 960명 가운데 95명(10%)이 미혼여성이었다(유재선, 1984, 36).
- 13)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은 공장자동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용, 사내 직업훈련, 근로시간의 연장, 생산라인 일부 폐쇄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대구상공회의소, 1993, 52).
- 14) 1995년 서울시 외국인 고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섬유업체가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

고 있고,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적별로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중국교포, 방글라데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주안·이변송·조준모, 1996, 142).

- 15) 1992년 대구시의 도시 계획면적은 790.05km²로 이 가운데 공업지역은 26.66km²(3.4%)로 나머지 대부분은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대구광역시, 1996, 21-22, 39). 대구지역 전체에서 (준)공업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역 제조업의 중심인 섬유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은 제약은 받게 되었다.
- 16) 대구 섬유산업시설의 해외이전은 저임금 노동력 이용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선진국 섬유수입 규제 회피, 소비시장 개척, 선·후발 개도국들간의 경쟁 등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文 獻

강현수, 1993, "80년대 후반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와 서울의 산업 재구조화." 서울연구: 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한울, 57-88.

경상북도, 1969, 경상북도 공업진단조사보고서.

건설교통부, 1997, 지가동향.

고태경, 1992,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 발달과 공간구조의 변화," 지리학, 27(3), 232-242.

권기철·주수현, 1997, "부산지역 경제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력 수급방안." 경제학논집, 6(1), 345-371.

권주안·이변송·조준모, 1996, "외국인 노동의 대체성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2), 135-158.

내무부, 1993, 한국외자도입 30년사.

노동부, 1995, 노동백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7, 대구·경북 섬유산업 구조개선방안.

대구상공회의소, 1987, "최저임금제의 업계의 대응," 대구상의, 4월호, 33-34.

_____, 1988, "도소매업 갈수록 열위," 대구상의, 8월호, 21-23.

_____, 1993, 대구지역 제조업 해외인력

활용실태 조사보고서.
 _____, 1996, "대구지역 제조업의 인력수
 급 실태조사", 대구상의, 7, 8-15.
 _____, 1998, 1997-1998년도 대구 · 경북 산
 업단지 총람.
 대구은행, 1997, 대구은행 30년사.
 대구직할시, 1993, 대구섬유산업 실태조사.
 대구광역시, 1996, 대구토지구획정리백서.
 매일신문, 1997, 9. 3.
 _____, 1998, 9. 9.
 박삼욱, 1993, "수도권 제조업 구조변화와 산업구
 조 조정방향." 지리학논총, 21, 1-16.
 박희진, 1997, "귀속기업의 불하와 1950년대 대구
 지역 섬유산업," 경제사학, 23, 157-183.
 배무기, 1982, "한국 노동경제의 구조변화." 경제논
 집, 21(4), 571-621.
 섬유기술진흥원, 1990, 대구 섬유산업사.
 _____, 1991, 1995, 대구 · 경북 섬유공업
 총람.
 이동기 · 이윤철, 1995, 일본기업의 대 아시아 직접
 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춘 · 유갑중 · 김병하, 1997, "대구지역 기계 ·
 금속산업의 경영실태와 발전방향," 한국
 중소기업학회지, 19(2), 179-201.
 이희연 · 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
 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이해경, 1997,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국인 노동
 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497-527.
 임종철 · 이천표, 1993, "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한국의 화섬산업, 한국화섬협
 회.
 영남일보, 1995, 8. 11.
 유재선, 1984, "기혼여성의 기능인력 활용," 대구상
 의, 4월호, 34-37.
 한상진, 1994,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산업
 재구조화," 경제와 사회, 22, 266-286.
 한국산업은행, 해당연호, 한국의 산업.
 한국산업은행, 1994, 한국산업은행 40년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5, 섬유공업통계.
 _____, 1997, "97년도 대구 · 경북 섬

유공업 등록직기 조사," 섬유개발연구, 9,
 5-11.
 한국섬유연합회, 1977-1997, 섬유연보.
 한국은행, 해당연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995, "최근의 제조업 부문간 성장격차
 의 현황과 배경," 조사통계월보, 12.
 한국은행 대구지점, 1988, 대구 · 경북지역 섬유산
 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대구지점 외 2, 1974, 대구지역 섬유산업
 실태.
 한국화섬협회, 1998, 화섬편람.
 허석렬, 1994, "포스트 주변부 포디즘론과 산업구
 조조정," 경제와 사회, 21, 207-215.
 홍경희, 1969, 대구의 공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 교실.
 장지상, 1992,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비민주
 주적 경제구조: 그 실상과 요인," 변형윤
 의 14인,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조명래, 199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구조의 재편:
 후기 주변부 포디즘의 지역공간구조 이해
 를 위해," 현대사회, 41, 20-41.
 조형제, 1994,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별 산업구조
 의 변화," 국제화 시대의 한국사회와 지
 방화, 나남출판.
 최병두,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29(2), 137-
 165.
 Aggarwal, V. K., 1985, *Liberal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organized Textile
 Trad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Bluestone, B. and Harrison, B., 1982, *The
 Deindustrialization of America*, Basic Books,
 New York.
 Clairmonte, F. and Cavanagh, J., 1981, *The World in
 Their Web: Dynamics of Textile Multinationals*,
 Zed Press, London.
 Dickerson, K. G., 1991, *Textiles and Apparel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Macmillan, New
 York.
 Fielding, A. J., 1994, *Industrial chang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Urban*

- Studies*, 31, 679-704.
- Finger, J. M. and Harrison, A., 1996, The MFA paradox: more protection and more trade, In Krueger, A.O.,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Trade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197-260.
- Kim, E. M.,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sues and Trends, In Clark, D.N. et al., *U.S.-Korean Relations*, The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Claremont McKenna College, California, 59-80.
- Koh, T. K., 1996, Economic and political responses to globalization: economic restructuring and local government as an entrepreneur,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1(4), 662-671.
- Lee, H. Y., 1994, Reg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restructuring toward the information society: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9(4), 377-401.
- Lim, J. D., 1994, Restructuring of the footwear industry and the industrial adjustment of the Pusa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567-581.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Macmillan, London.
- Morgan, K. and Sayer, A., 1988, *Microcircuits of Capital*, Westview Press, Boulder.
- Oman, C., 1989, *New Forms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y Industries: Mining, Petrochemicals, Automobiles, Textiles, Foo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Park, K. T., 1997, *The Develo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in Taegu,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Ph.D. dissertation.
- Park, S. O., 1993,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25, 81-93.
- Penn, R. et al., 1991, Gender relations, technology and employment change in the contemporary textile industry, *Sociology*, 25(4), 569-527.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 *International Trade: Trends and Statistics*.
- Yamazawa, I., 1990,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The Japanese Model*, Resource Systems Institute, East-West Center, Hawaii.